

등록번호 다-467/발행인 김정석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www.klmc.net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유아세례로 하나님의 축복 받은 자녀들

5월 2일 어린이 주일, 20명의 유아들 세례 받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 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마 19:14)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 받는 유아세례식이 5 월 2일 주일 2부, 3부 예배에서 진행되었다. 김정석 담임목사의 집례로 2부 예배에서 11 명, 3부 예배에서 9명의 자녀들이 유아세례 를 받았다. 코로나19로 지난해는 모든 세례 예식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지난 성 인세례식에 이어 유아세례식도 은혜롭게 거 행되었다. 기존 유아세례는 집례를 맡은 담 임목사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세례를 주었 지만, 이번 세례식은 부모들이 아이를 안고 세례를 받았다.

유아세례식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집례자와 부모, 아이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한 의 접촉만으로 진행되었다.

유아세례는 세례교인 부모의 신앙고백에 따

라 어린아이에게 베푸는 세례이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며 성경의 원리에 따라 양육하고,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일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해야 한다. 유아세례를 받은 교인은 성인이 되어 입교식을 거쳐야 정식 세례교인으로 인정을 받는다.

유아세례식은 세례자 호명과 함께 김정석 담임 목사의 성경말씀과 기도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자라는 대로 성례의 뜻을 가르치며 그리스도인의 생활 에 대해 가르치겠습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 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도록 훈련하겠습니까? 구원의 선 물을 받아드리고 입교식을 통해 책임 있는 교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도록 노력하겠습니 까?"라는 물음에 "네, 가르치겠습니다. 훈련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답을 마 친 후 순서대로 세례가 베풀어졌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기도로 자녀들을 축복 하며 세례증서 수여와 공표로 유아세례식을 마쳤다. 다음 유아세례는 5월 16일, 주일 2 부, 3부 예배 때 있을 예정이다.



5월 2일 유아세례를 받은 황성언(15개월)어린 이 부모(부: 황지현, 모: 홍정화)는 "아들 성언 이가 육의 자녀로 태어나 성언(거룩한 말씀, 복음)이라는 영의 자녀로 거듭나는 축복의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진실 된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성언이가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운 자가 되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자라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며 감사했다.

또 광림서교회 서은서(5살)어린이 부모(부: 서원진 모: 전부연)는 "은서가 태어나고 지금 까지 주말부부로 지내기도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참석이 어려워 유아세례를 미루 게 되었는데 올해 5살이 된 은서가 이렇게 유아세례를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기쁨과 화평의 통로가 되어 주는 은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 고 밝게 자라 세상에서도 사랑과 화평의 역 할을 잘해 나가길 기도합니다.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가정이 되도 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자녀들로 자 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라고 세례의 기쁨 을 전했다.

🥕 이상희 기자 shlh616@naver.com

광림의 강단 4 위로의 자리에 참여하라 3 광림 스토리 교회학교 시온 페스티벌

 4
 하나님을 만나다
 5
 다음세대

 웨슬리의 발자취를따라-12
 5
 다음세대

특집 사랑의 집 **용 특집** 장천의 아흔인생과 목회신학 이야기

위로의 자리에 참여하라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고린도후서 1장 5절)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치유와 회복 을 경험했지만, 이와 달리 사도 바울은 자주 아팠고 '육체의 가시'(고후 12:7)를 치유하기 위해 드린 간절한 기도도 세 차례나 거절되 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도 배고픔과 목마름, 강도를 만나는 위험, 강과 바다를 건 너다가 죽을뻔한 위험 등 바울이 겪은 고초 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 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자 주 오해와 불신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처 럼 바울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고 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최고의 일로 여겼습니다.

비참해 보이는 인생이지만 결코 바울의 인생 을 그렇게 여길 수 없는 이유는, 그의 고백 과 같이 바울은 늘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 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 한 경험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은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 은 공의로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고 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와 같은 모습 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 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고통이 넘치는 것만 큼 위로도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고난과 위 로를 통해 소망이 더욱 견고해진다고 말합니 다.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 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위로 는 더욱 강력합니다.

바울은 본문 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 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고백합니 다. 과연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힘 들다' 혹은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을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당할 수 없는 한계상황과 어려움에 이를 때 모든 것 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때 하나님이 찾아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다시 일으키신다 는 사실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성숙한 모습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갔습니다. 더욱 부드러워졌으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 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 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 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것 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 위로를 더해주십니다.

고난을 당하는가 당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 위로하심으로써 하나님 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1절

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 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 든 성도에게 2. 하나님 우리 아버지 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3. 찬송하 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 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 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 여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 우리는 도다 6.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 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 너희를 위한 우 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 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 에도 그러할 줄을 앎이라 8. 형제들 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화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

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 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 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 라 10.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 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 라 11.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 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 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 사하게 하려 함이라

도구로 삼으십니다.

사람마다 고난의 종류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 은 물질로 인해, 어떤 사람은 관계로 인해 고난 을 받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크기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 금 겪고 있는 고난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으 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고난 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사

둘째, 우리의 연약함을 새로운 창조의 |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그 비난과 의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 고, 목적은 같지만 분쟁하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바울에게도 동역자가 많았 지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 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로 낙심할 때, 하나 님의 위로가 함께 했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주셨으며,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습니 │ 도직을 의심했으며, 그의 부족함에 대해서 │ 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은 우리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을 하나님 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연약함은 실패가 아 니라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 연약함을 기적을 창조하는 도구로 만드십 니다.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연약함을 통해 하나 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새로운 창조의 도구로 삼으시는 하 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

셋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사명 을 주셨습니다.

여러 상황과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명을 깨 닫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신 것처럼, 이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어 그들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위로'는 헬라어로 '같이 서 있는 것'을 의미합 니다. 진정한 위로는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 다. 고난의 현장에서 나눌 수 있는 최대의 위 로는 다름이 아닌 함께 느끼고 함께 있어주 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연약 함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를 통해 나와 같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웬은 그의 책 '상처입은 치유자'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 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상처로 상처받은 사 람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외감을 느낀 사람이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 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외로움을 경험한 사 람이 외로운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게 상처가 있다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 로자'로 부르십니다. 인생의 모든 만남이 위 로의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 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위로 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유하 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 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 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I 02-2056-5771

인우학사 〈아펜젤러 선교센터〉로 리모델링

해외선교사들의 국내 체류 시설로 사용



광림교회는 '인우학사'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 감리교 최초의 해외선교사 이름을 따 서 〈아펜젤러 선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 며, 리모델링 후에는 해외에서 돌아오는 선교 사들이 체류할 예정이다.

1954년 9월 미국 UMC의 Richard Raines

감독과 그 후원자들에 의해 설립된 인우학사 (서울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지방교역자 자제를 위한 기숙시설)는 1996년 광림교회가 건축비를 후원하여 재건축되어 현대적 기숙사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25년 전 광림교회의 시대적 선교 사명으로 지어진 인우학사는 이

제 시설이 낙후되고, 코로나19로 비대면수업 과 거리두기로 인해 기숙사 사용자가 현격히 줄어들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에 거주하는 감 리교 선교사들이 부득이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광림교회는 해 외선교사들의 숙소가 부족하여 힘든 상황을 인지하고 인우학사를 선교사들이 체류하며 안식을 얻고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사 용하기로 결정했다.

광림교회는 매년 5월 선교주일에 해외선교사들을 돕는 선교헌금을 하고 있다. 올해 5월 16일(선교주일), 선교헌금은 온전히 〈아펜젤러 선교센터〉를 건축하는데 쓰여 진다. 광림교회 성도들은 기도와 헌신으로 해외 선교지를 비롯해 다양한 선교에 앞장서고 있다.

🖈 백명순 기자 bmsoon@naver.com

포토뉴스



어린이주일 5월 2일 저녁예배에서 찬양하는 어린이들



4월 찬양의 밤 4월 25일 저녁 찬양의 밤 예배를 드렸다.



추즈 라이프 '구약의 맥'이 조성한 목사 강의로 진행중이다.



어번던트 라이프 '한국교회의 처음이야기'가 정용식 목사 강의로 진행중이다.

담임목사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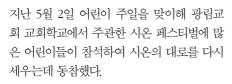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net

'시온의 대로'에 모인 광림의 어린이들











이날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한 아이들은 각 부서에서 정성껏 준비한 시온팩을 받고 즐거 워 했다.

밀레니엄공원과 사회봉사관 앞에서는 LED

비행기를 받으려고 많은 교회학교 어린이들 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

사회봉사관 앞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교회학 교 선생님들을 만나 선물을 받은 아이들의 입가에는 연신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밀레니엄공원에서는 예배를 마치거나 예배를 드리러 온 아이들이 차례로 선물을 받았고 몇몇 아이들은 광장에서 비행기를 날리며 마 음껏 뛰놀았다.

이은정 집사는(18교구)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시온페스티벌을 통해 교회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되어 시온의 대로인 교회로 많은 아이들이나아왔으면 좋겠다"고 행사 참여 소감을 밝혔다.

박희윤 기자 ygygp@naver.com

새가족 환영, 섬김세미나 행사 가져



새가족위원회는 4월 25일 주일 3부예배 후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에서 지난해부터 광림교회에 나와서 교육과 세례를 받은 130 여명의 새가족에 대한 환영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새신자들은 각 교구별로 정해 진 자리에 앉아 각자 교회에 나오게 된 경

위와 소감을 발표하였으며, 담당 부목사와

교구 전도사는 이들에 대하여 교회 전반의 궁금한 점과 예배안내를 하고 또 소정의 선 물도 나누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격려말씀을 통해 "코로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소 외감이나 고독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해 소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종교이며 하나님 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종교가 기독교이다. 물론 교회에 나온다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 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갈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전 하였다.

한상국 장로(새가족위원회 위원장)는 "종 전에는 연말에 새신자들을 환영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코로나로 지난해 못한 것을 이번에 하게 되었다. 새신자들을 교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을 각 교구의 속회 나 선교회 모임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 요하다. 오늘의 행사가 새신자들이 광림교 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 면한다"고 했다.

➡ 이득섭 기자 7sublee@naver.com

내 인생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 15:22)

20여년 전 돌아가신 친정 할아버지께서 는 제가 초등학교 때 남산 도동교회의 장 로님이셨습니다. 방학 때마다 서울에 와 서 뵈러 가면, 할머니께서는 수시로 제게 주일예배 반주를 하면 어떻겠냐 하셨습 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성가대가 있었고, 예배 반주자가 있었을 텐데, 할머 니는 피아노를 좀 칠 줄 안다는 손녀딸 자 랑이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며 숫기도 없고 고 집이 셌던 저는 피아노는 더더군다나 안 된다며 울면서 도망가고 구석에 쪼그려 앉기 바빴습니다. 조부모님께서는 제가 결혼 후에도 교회에서 봉사나 반주하는 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2006년 여선교회총연합회에서 봉사하 기 시작하며, 중학교 때 그만두었던 피아 노를 다시 치게 되었습니다. 손이 굳어 음 도 빠지고 다른 음도 누르고 부끄러울 때 도 많았지만, 그 옛날 배웠던 피아노가 이 렇게 쓰임 받는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좀 더 잘 쳐야 찬송하는 교인들에게 방해가 안된다는 부담감도 들어 연습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계삭회장님께서 각 교회 여선교회마다 연극이나 콩트를 발표하라 고 과제를 주셨고, 우리는 찬송 411장을 개사하여 대본을 만들고 열 처녀의 비유 를 연습하였습니다. 최인숙 권사님은 어 리석은 처녀 역할을 맡아 "문 열어주세요" 를 "오픈 더 도아~~"로 바꾸시며 큰 웃음 을 주었고, 우리 여선교회의 콩트는 호평 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계삭회가 열렸던 역삼동의 감람교회는 할아버지가 섬기셨던 바로 그 도동교회였 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원하셨던 기도 (교회에서의 반주)가 30년이 넘어 이루 어졌다는 걸 깨닫고, 진작 순종하여 생전 에 보여드렸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후 회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가끔 즉시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 합니다. 인간적인 염려가 순종보다 앞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용 기와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할 도움의 손길 도 허락하셔서 더욱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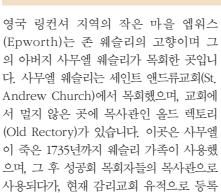


基 김효겸 권사 (여선교회총연합회 부회장)

웨슬리의 발자취를 따라 - 12

엡워스의 올드 렉토리 기념 엽서





올드 렉토리에서의 삶은 훗날 존 웨슬리의 신앙생활과 목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

되어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웨슬리의 생가

◀1823년 제작된 웨슬리의 생가 기념 엽서

에 웨슬리의 가족들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큰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왕궁의 농지개 간사업과 지나친 세금에 대한 불만으로 외지 에서 온 성공회 성직자를 반기지 않았기 때 문에 웨슬리 가족들을 때때로 적대시하거나 거칠게 대했습니다. 그러던 중 1702년 2월 9 일 밤에 목사관 방화사건이 있었고, 6살이었 던 존 웨슬리는 불길에서 마지막으로 구출 되었습니다. 이 후 이웃들은 더 이상 웨슬리 가족을 괴롭히지 않았고 목사관은 재건축되 었습니다. 이 사건을 회상하며 존 웨슬리는 자신이 '불꽃 속에서 타다 남은 부지깽이'라 고 고백했습니다.

이후에도 존 웨슬리의 어머니인 수산나 웨슬

리는 올드 렉토리 주방에서 자주 소그룹 모 임을 인도하였고, 웨슬리는 이 모임을 통해 속회의 중요성을 배우고, 여성 리더에 대해 존경과 신뢰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엡워스는 감리교회의 두 기둥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고향이자, 그의 어머니 수산 나 웨슬리가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했 던 곳이기에 감리교인들의 영적인 고향이 되 었습니다. 영국 런던 시티 로드의 웨슬리 채 플 옆으로도 엡워스 로드가 있으며, 미국 감 리교회 청년운동의 이름도 엡워스였으며, 이 운동이 한국 선교 초기 정동교회와 상동교회 의 엡워스청년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감리교인들이 엡워스와 올드 렉토리를 기념하며,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림으로 남 겨 기념하고자 했는데, 우리 광림 헤리지티 & 비전 홀에 있는 작은 엽서가 그 중 하나입 니다. 옛 올드 렉토리의 모습과 그 앞에 한 여인이 그려져 있는데, 수산나 웨슬리로 보입 니다. 그림 아래에는 "존 웨슬리가 태어난 곳, 엡워스(The Birth-place of the Rev. John Wesley. Epworth)"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 습니다. 이 엽서는 1823년에 제작된 것입니다.

メ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우리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5월 2일 주일, 2부와 3부예배에서 총 20명의 유아들이 김정석 담임목사의 집례로 유아세례를 받았다.













이건/이강 부:이화진 모:신효정 김서하 부:김민형 모:임영원















정온유 부:정지웅 모:인성은



이로은 부:이재会 모:인진호



이하유 부:이축호 모:권재형



정다인 부:정원관 모:김근혜





서하진 부:서정균 모:김지혜



안광헌 부:안병태 모:5



서은서 부:서원진 모:전부연



〈TETRIS〉 상반기 총력전도를 마치며

광림교회 청년부







광림교회 청년부는 이번 5월 2일(주일)까지 4 주간에 걸쳐 총력전도를 진행했습니다. 청년 부는 'TETRIS'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 청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속회별로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모았습니다. 청년부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손편지를 쓰고, 속원들이 다함께 준비한 VIP가 원하는 선물과 VIP의 영적인 회복을 위한 가장 필요한 복음이라는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5월 2일 주일에 40여명의 VIP들이 예배와 속회에참여하였습니다.

총력전도 D-day였던 5월 2일 주일에는 청년 부 주일 예배 가운데 2교구와 4교구의 각 임 원들이 VIP를 위해 준비한 영상을 상영하여 4주간 동안 VIP들을 기억하며 기도로 준비 해왔다는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당일 5부 예배 전후로 속회별로 포토존과 즉석 포토 프린트를 준비하여 오랜만에 교회로 발걸음 을 옮긴 VIP와 속원들이 함께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청년4교구 이서은 속장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령님께 기도하고 주시는 마음과 인도하심에 따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마음들을 전달하게 되었고 속원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을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온아들을 큰 사랑으로 맞이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전했고, VIP들을 위한 영상제작에 참여한 2교구 조예준 속장은 "작은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했지만 '잃은 양'을 찾겠다는 마음 하나로 모두가 하나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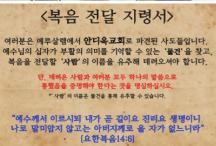
간 허락하신 지혜와 마음들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감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을 조금이나마 느끼며 같은 마음으로 교구 속장들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어 행 복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청년부는 이번 총력전도를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지혜를 모았을 때 도 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앞으로 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주의 복음 을 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광림교회 청년 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의 청년들에게 복음의 통로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도 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진선규 전도사(청년부)

4월은 고등부의 예배 회복 DAY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 님이 거룩함이니라" (레 19:2)

고등부에서는 4월의 봄을 맞이하여 '예배 회복'과 '전도'라는 주제로 활동했다. 4월 첫째 주, 부활주일은 예배를 향한 마음의 회복, 예배를 향한 발걸음의 회복,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로 초청(전도)이라는 목표를 가졌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세상 가운데로 파송 받은 사명을 되새기고자 고등1부에서는 〈복음전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예루살렘(예배실)에서 보내진 아이들은 각초대교회(분반실)마다 미션을 수행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상징하는 달걀 모양 초

콜릿들을 찾았다. 고등2부에서는 '비범한 신 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미라클 메이커스' '일상이 기적이 되게 하는 미라클 메이커스'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Miracle Makers' 캘리그라피가 새겨진 온도 텀블러를 아이들에게 선물했다.

4월 11일 ~ 25일까지는 레위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태도의 회복, 두 번째,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거룩한 삶. 세 번째, 영원한 기쁨(희년)을 완성하시고 열어주신 예수님께로 초청이었다. 고등부를 담당하는 김하영 전도사는 "아이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에 매일 가지 않다보니 교회에

오지 않는 것도 익숙해진거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레위기 말씀을 통해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태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배우면서예배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라고 했다.

또 고등1부에서는 만날 수 없어 아쉬운 친구에게 함께 예배드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반별로 정성스럽게 적은 롤링페이퍼와 손수건, 말씀 카드를 발송했다. 고등2부에서는 미라클 카풀서비스 및 반별 Q&A, 이름 빙고등을 진행했다. 미라클 카풀 서비스는 신청자를 받아서 해당 지역과 가깝게 거주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로 나아오자는 초청이었다. 반별 Q&A시간을 통해서는 분반별로신앙생활이나 서로에 궁금한 질문들을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DAY 당일에는 이름 빙고를진행하면서 학년이나 반을 넘어 고등2부 안에서 서로를 더잘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문지현 부장은 "4월은 총력전도의 달이긴 했지만 안 나오는 아이들 위주로 내실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화 심방을 해보면 집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으로는 청소년 시기 때 교회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어 딴길로 가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수 있었어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최대한 교회와 그 끈이떨어지지 않도록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실희경 기자 xijing1970-@naver.com

신앙 간증

십자가의 그 사랑

광림교회 청년부 1교구 속장 임채리입니다. 제가 경험한 삶의 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력에 대한 열매를 거두고, 모든 것이 채 워져 편안하다 싶을 때쯤, 공식 같던 제 삶 에도 해결되지 않는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 '왜', 목적에 대한 질문이었습니 다. 당시 저는 법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법 조인이 되어야 할 목적이 흔들리고 욕심만 남은 스스로를 직면할 때마다 괴로웠습니 다. 흔들리는 상태로 평소 가던 대예배가 아닌 청년부 젊은 예배에 가보았습니다. 그 때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이 주일을 꼬박 하나 님께 드리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시는 할머니의 하나님과 저 뜨거운 청년들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은 놀랍게도 단박에 일어났습니다. 20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하 나님의 아이러니한 속성들은 '십자가 사랑' 으로 해결되고 덮였습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지은 시처럼 영적인 눈이 멀어 캄캄한 밤에 갇힌 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답을 찾으려 할 때, 하나님 께서는 제게 길과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유한한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고작 피조물인 제가 납득할 수 없는 크기와 깊이의 사랑을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부어주고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의심 많던 제게 확실한 삶의 목적을 심어 주셨기에, 두려움 내려놓고 하나님과 오늘 도 동행합니다. 법조인의 꿈 다음으로 하 나님께서는 제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땅을 보여주시고 도전할 힘을 주셔서, 놀 랍게도 법 전공생이 예능PD가 되어 방송 을 만들며 살고 있습니다. 교회학교에 가 는 시간을 아까워하던 저를 돌이키시고 속 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 체들과 단란한 속회를 꾸려 하나님 이야기 꽃 피우는 주일 저녁을 보냅니다. 가장 화 려한 거리 가로수길에 복음을 심는 문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제가 일할 수 있는지를 이 세 가지 변화를 통해 명확하게 보여주셨습 니다.

세상의 직업인 방송도, 교회의 자리인 문화사역도 그 목적 안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세상이 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가받은 가장 큰 선물인 복음을, 제게 허락해주신 달란트를 아낌없이 쓰며 흘려보내는 삶을 살 것입니다. 저의 모든 것은 다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가정(家庭)

- 목회현장 -



박중섭 목사 (9선교구)

저희 선교구는 언제나 공사 중(?)입니다. 늘 재건축과 관련된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립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어느 성도님 가정을 대심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방을 드리면서 눈물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심방을 마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연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이제 40년 넘게살던 이곳에서 마지막 대심방을 드린다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자녀를 양 육하던 이야기며, 그럼에도 단 한번도 떠난 적 없던 이곳을 이제 떠나야 한다는 생각 을 하니 눈물이 났던 것입니다.

또 어떤 가정을 심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데 마침 심방 하는 날이 가정에 손주를 보내주신지 1년 된 날인 것입니다. 자녀 가정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심방을 마치고 영상통화를 하여 1년 전의 축복을 다시 기억하며 손주를 위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기도하는 것을 아는지 가만히기도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돌예배는 아니어도 첫돌을 기념하며 축복기도를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구나!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만남이 줄어드는 아 쉬움은 있습니다. 가정의 달도 의미가 흐 릿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 무엇인가? 가정을 위해서는 주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눈물과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 생각에는 한 공간 안에서 같이 공유한 추억이 진짜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변 하여 랜선을 통해 전달되는 가정의 사랑도 사랑이고 가정임을 우리는 재발견하게 됩 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 마음이 점점 찾아가는 수고를 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에 서는 물론 어렵지만 지금 우리는 부모님을 찾아가 뵐 수 있는데도 코로나를 하나의 구실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편리해 져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며 저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다 이해하시고 괜찮다 하십니다. 오히려 바쁘니까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평생 기다리지 못하십니다. 언젠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찾아가며, 연락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가정이고 그 것이 예배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유년부 작은음악회

〈광림남교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 리이다"(시 43:4)

2021년 5월 2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광 림남교회 유년부 어린이들은 '작은 음악회'로 하나님께 찬양 드렸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가진 악기로,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찬양하였습니다. 마스크를 잠시도 벗을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오히려 더욱 찬양 드리기로 결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기를 기다리던 마음이 있었지만, 상황을 바라보던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믿음의 아이들은 이 땅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이들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힘으로, 이 세상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든든히 서

★ 김보석 전도사(광림남교회)

총력전도주일 & 어린이주일

〈광림서교회〉



광림서교회 교회학교는 4월 전도의 달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총력전도주일, 어린이주일을 진행했습니다.

4월 한 달은 전도의 달로 전도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고, 특별히 4월 25일(주



일)은 총력전도주일로 코로나19로 오랫동 안 예배에 오지 못했던 아이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월 2일(주일)은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다양한 활동과 준비된 선물을 통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배 시작 전부 터 기대감 넘치는 모습으로 교회에 찾아오는 아이들을 보니 저절로 미소가 나왔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아이들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총력전도주일과 어린 이주일, 많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준 비된 활동들(마스크 꾸미기, 풍선 만들기, 서칭 서칭 바이블, 에어 바이킹 등)을 통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린이주일을 보내며 다시 한 번 광림서교 회 교회학교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과 말씀 속에서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 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조아라 전도사 (광림서교회)

트리니티 성경암송으로 풍성한 삶

〈광림북교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시 119:103)

매주 화요일, 트리니티 성경공부를 통하여 말씀의 큰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광림북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트리니티 성경공부에 동 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큰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광림북 | 특별히 성경공부에 앞서 진행되는 암송시간

은 또 다른 영적 즐거움의 시간입니다. 북교 회에서도 매주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고 계 십니다. 성경 구절을 한 마디, 한 마디 암송 하시는 성도님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듣는 것 자체도 큰 은혜이고,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며 말씀의 축제를 열게 됩니다. 말씀 이 영의 양식이라면, 말씀 암송은 영적인 도 시락을 갖고 다니는 셈입니다. 언제든 꺼내 어 먹을 수 있는 영의 양식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Abundant Life)이 되 는줄 믿습니다.

벌써 종강이 2주 밖에 남지 않아 아쉬움과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끝까지 말씀에 집중 하여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그리 고 세계 열방과 온 땅에는 속히 하나님의 치 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 황영재 목사 (광림북교회)



사랑의 집 광림노인전문요양원

30년간 믿음과 섬김, 나눔으로 노인복지증진에 힘써

사랑의 집이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는다. 광림교회는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1991년 5월 9일 강원도 춘천시에 사랑의 집을 개원했다. 처음에는 무의탁 노인들과 은퇴 교역자들을 섬겼으나 1992년부터는 대한적십자사와 외무부의도움으로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한 분들을 모시게 되었다. 사랑의 집의 오랜 역사 가운데사할린 동포들을 거주하게 한 것은 특별한 기념비로 남는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 3차에 걸쳐 155명의 고령의 사할린 동포들을 사랑의 집으로 모셔와 돌보았다. 역사적 아픔으로 타향살이하며 고국을 그리워하는 어르신들에게 남은 삶을 고국에서 평안히 보낼 수 있도록 정성껏 돌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의미 있는 일이었다.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로 최우수 장기요양기관 선정

사랑의 집은 고령화 시대에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기 위해 2002년 〈광림 노인전문요양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개원했다. 국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일반 노인들을 위한 의료복지시설로 발전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실천하며 연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또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간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돌보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광림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광림노인전문요양원(원장 홍종환)에는 현재 80여 명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개인의 중 상과 특성에 맞는 맞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년의 마지막 삶을 도우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을 위해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60여 명의 전문인력이 믿음과 섬김, 나눔의 정신으로 가족처럼 보 살피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광림노인전문요양원은 노인 의료복지 시설 중 최우수 장기요양기관으로 선정되고있다.

부속기관으로는 강촌광림교회(담임 전선옥 목사)가 있다. 강촌광림교회는 몸과 마음이 연약해진 광림사랑의 집 어르신들에게 천국의 평안과 소망을 전하는 영적 돌봄 사역을 맡고 있다.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속회로 어르신들과 직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방〉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운영한다.

성도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섬김

광림노인전문요양원은 다양한 행사와 자원봉사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고 있다. 해마다 어버이주일이면 사랑부에서 사랑의 집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꽃을 달아드리고 사랑과 감사를 전한다. 또한 열심히 준비해온 오카리나 공연 등을 하며 즐거움과 기쁨을 드린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직접 방문하는 대신 광림주간보호센터와 예수와주간보호센터에서 정성껏 만든 카네이션을 보내와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광림교회 성도들은 선교구에서 해마다 사랑의 집을 찾아 찬양과 기도로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식사 도우미와 실내청소 등을 하며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 사랑의 집 광림노인전문요양원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평안과 삶의 기쁨을 찾는 휴식처로 쓰임 받고 있다.

주 소: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771-79 (안보리 863번지)

문의: 033-263-3994~7

홈페이지: http://www.klsilver.or.kr/















4 아담 해밀턴 목사(부활의 교회담임)



아담 해밀턴 현 부활의 교회 담임목사는 '망망대해 등대가 되어 사역의 방향을 비추다'라는 말씀으로 김선도 감독님을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사랑과 비전의 목회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활력을 주고 회복시키는 힘으로 갈등과 반목을 극복해 내는 겸손과 희생의 지도자, 그리고 존 웨슬리의 길을 따라 명확하고 정확하며 간결한 설교를 통해 선교에 참여하도록 소명의 힘을 불러일으키는 설교자로 소개했다. 아담 해밀턴 목사는 1980년대 남 감리교신학대학교학생으로 광림교회의 비전을 알게 된 후 감독님을 '현명한 스승'으로 '존경하는 친구'로 '전 세계 선교의 지도자'로 존경하게 되었다. 세계 곳곳에 감독님이심어 놓은 복음의 마중물은 현재도 계속 역사하고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아래는 아담 해밀턴 목사의 글 요약본이다.

겸손과 긍정의 힘으로 사역하다

1980년대 내가 신학생이었을 때 광림교회의 '긍정적인 신앙'이라는 교회의 전통을 알게 되었고, 1990년대 초 모스크바를 여행하면서 광림교회가 세계로 뻗어나는 사역의 성과를 처음으로 목도하게 되었다. 김선도 목사와 광림교회가 에스토니아에 새로운 감리교신학교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지원으로 발트해 연안 감리교신학교를 세우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광림이 짐바브웨, 중국, 베트남, 캐나다, 일본 심지어 무슬림이 우세한 터키에까지 교회를 세웠다.

광림교회는 단순한 대형교회가 아니었다. 선교하는 교회였다. 광림교회는 자신의 교회 영역을 확장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했다. 무조건적 나눔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노력한 교회였다. 이와같이 김 목사의 선교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과 열정은 끊임없이 확대되고 전파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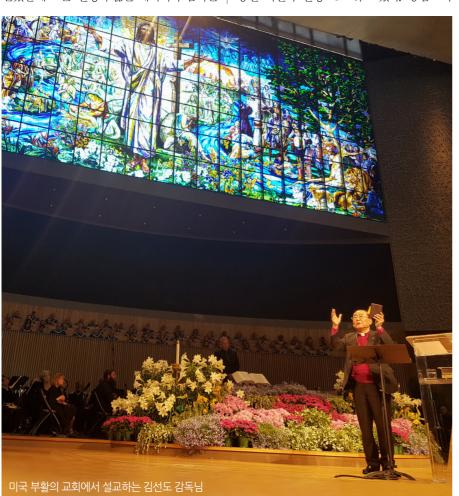
겸손과 열정의 힘으로 스스로를 이끌다

한국의 광림교회를 방문해서 김선도 목사를 만났을때 그는 '열정의 젊은 에너지가 넘치면 서도 온화한 겸손의 힘을 지닌 목사였다. 사실, 김선도 목사는 엄청나게 큰 화중의 지도자였 고 전 세계에 놀라운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 구하고 내가 직접 만난 김선도 목사는 나이 가 무색할 만큼 젊은 에너지가 충만하고 겸 손과 은혜로 자신을 이끌어 나갔다.

김선도 목사가 우리 부활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도 피곤한 기색없이 곳곳을 살피며 눈에 담고 귀 기울여 들어주었다. 이 모습은 내가 알고 있는 아시아의 예절 문화도 아니었고 거 짓된 겸손도 아니었다. 그분은 자신보다 더 젊고 경험이 부족한 목사인 나에게도 항상 배우는 태도로 관심을 표현하며 진심이 담긴 마음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에게서 겸손과 열정을 보았고 이 두 가지 모두 목사의 본질적인 자질로 이해한다.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헌신하다

런던의 웨슬리 채플에 가니 예배당 로비에 김선도 목사의 흉상 조각이 있었다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말했던 존 웨슬리의 심장과 같이 김선도 목사의 심장은 전 세계의 복음을 향한 비전과 열정으로 뛰고 있다. 광림교회







▲미국 부활의 교회 전경과 아담 해밀턴 담임목사의 광림수도원 봉헌예배 영상축사

본당을 둘러보면서 교회가 거대하지만 현대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 전통적인 파이프 오르간과 스테인드글라스 및 고정된 강단으로 고전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단을 무대로 대체하고 그무대를 전자악기와 화려한 조명으로 채운 많은 현대 미국 교회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광림교회는 전통 예배를 유지하고 예전을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예배에 힘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활력을 주는 힘으로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다

김선도 목사는 공동체 의식과 복음을 융합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기도하는 지도자로서 겸손한 설교를 통해 회중의 마음을 하나로 엮었다. 이것이 '다시 활력을 주는 힘'이다. 생명을 되살리는 힘이다. 세계 전역으로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예기치 않게 김 목사의 행로를 따라가게 되었다. 그분이 지나가는 곳마다 항상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힘'이 생겼다. 한때 무너졌던 교회, 병원, 학교가 회복되었고 새로운 사역들은 지역 교회를 통해 계속되었다.

그분은 여전히 세계 전역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펌프의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며 귀한 선교사역을 행하고 있다.

소명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다

우리 교회를 방문한 김선도 목사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오 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을 위한 질문 이다. 그 날 김 목사의 설교는 우리 모든 성 도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의 설교는 명확 하고 정확하며 간단하고 간결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그의 언어가 오래 지속되는 이유다.

김선도 목사의 설교가 광림교회가 세계 최대

감리교회가 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김 목사의 설교는 그리스도의 사 명 안에서 우리의 소명을 찾아 이루게 하기 위해 성도들과 나를 불러냈다. 그 부르심은 그들이 아프리카,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선 교센터와 교회건축에 참여하도록 소명을 주 었다.

나는 광림교회의 성도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때 마다 그들은 모두 겸손하고 열정적이었고 김선도 목사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교회를 움직이는데 있어 진정한 힘이 된 것은 아닐까. 이 힘은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현실적 삶이 아니라 미래와 더 좋은 세상에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이다.

창조의 힘으로 부흥을 이루다

나는 김 목사의 목회 철학 중 '풍요한 창조'를 기억한다. 미국 부활의 교회에 스테인드글라 스 창에 성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웨슬리 등과 함께 김선도 목사가 새겨져 있다.

나는 김선도 목사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그분의 삶이 우리 각자의 삶에 등대가 되어 환하게 비추기를 바란다.

